이란전쟁 상황과 이번주 물가지표 관망 증시 혼조, 보합권 마감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
변동성 속 보합권 마감한 증시, 월가는 낙관론 제시

- 미 증시는 DOW -0.07%, S&P500 -0.21%, NASDAQ +0.01% 보합권에서 혼조세 마감
- 장중 유가 변동성이 증시 등락에 영향을 미침. 기술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세 보인 한편 반도체와 S/W 간 방향성 엇갈림. 에너지 섹터는 유가 하락 영향으로 가장 약세
- 이란전쟁 발발 후 상대적으로 강세 보였던 S/W 주는 이날 약세. IGV(S/W ETF) -2.3%. 도이치방크는 AI S/W 우려가 정점을 찍은 지금이 기회라고 언급. 장마감후 오라클 호실적 영향 시간외 강세
- HSBC 는 이란산 원유 급등 우려가 정점을 지났다고 언급하며, 보유종목 비중을 최대로 늘리는 전략을 제시

국제유가 하락, 다만 전쟁 상황에 따른 변동성 여전

- WTI $86.4(-8.84%) 전일 G7 재무장관 긴급 화상회담에 이어 IEA 에서도 전략비축유 방출을 검토하기 위한 긴급회의 개최 소식에 공급 우려 완화 영향
- 해프닝에 따른 장중 변동성 확대.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는 라이트 에너지장관의 SNS 글에 WTI $77 까지 급락. 그러나, 이후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서 재반등, 증시 변동성에 영향
-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는 미국측이 이란과 대화 의지가 있음을 표명.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설치 정황이 나타나며 종전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노출

이번주 물가지표 발표 주시하며 채권시장 보합권

- 2 월 CPI, 1 월 PCE 등 물가지표 발표 주시하며 국채금리 보합. 다만, 장후반 유가 재반등에 장기물 중심 상승
  10Y 4.157(+2.2bp) 2Y 3.592(0.0bp)
- 2 월 기존주택판매 MoM +1.7% 컨센 상회, 전월대비 개선. 주담대 금리 하락에 따른 주택구매 여건 개선, 반면 매물 부족 등으로 주택중간가격은 +0.3% 32 개월연속 상승
- 2 월 NFIB 소기업낙관지수 98.8, 전월비 0.5p 둔화

특징주: 실적으로 증명한 오라클, AI 인프라 선점에 나서는 엔비디아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ORCL	오라클	-1.4%	AI 데이터센터 자금 조달 우려에 주가 하방 압력 받았으나, 장 마감 후 발표된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시간 외 +8%대 주가 상승. 빅테크의 인프라 수요로, 인프라(IaaS) 사업부 매출 성장률 가속화
NVDA	엔비디아	+1.2%	차주 GTC 개발자 컨퍼런스 대기하는 가운데, 전 오픈AI CTO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'싱킹 머신즈 랩'과 파트너십 체결 소식 보도. 내년 초 차세대 베라 루빈 시스템 1GW 규모 도입 예정, AI 인프라 선점에 나서는 모습
MU	마이크론	+3.5%	유가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과 메모리 업황 기대감에 주가 강세
AMZN	아마존	+0.4%	미 회사채 발행에 $126B 수요 몰리며 흥행 소식 보도. 매크로 불확실성에도 불구, 빅테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강력함을 시사. 한편 '25년 말 제기한 퍼플렉시티 소송서 승기 잡음. AI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는 행위 일시 차단되며 수익 모델 보호
KSS	콜스	-1.5%	4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컨센 상회하는 '26 회계연도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장 중반 주가 상승 보임. 다만 동일매점매출이 5 년 연속 감소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에 주가 하락 전환